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5.11.22.(토) 08:00	담당기관
		주영 한국문화원

영국 한류팬들이 직접 만든 대표 한류 플랫폼

‘한류콘 2025’런던서 5주년 성황 개최

- 한국문화의 예술성과 감성을 영국 관객에게 전하는 다층적 문화 플랫폼으로 도약
- 한류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커뮤니티 연계를 강화하는 문화교류의 장 마련

□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 이하‘문화원’)은 지난 11월 21일(금), 런던 삼성 킹스크로스 KX에서 한류콘 2025 (Hallyu Con 2025)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은 한류콘은 한국문화의 다양한 얼굴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대표 한류 행사로, 영국 내 K-컬처 팬들과 창작자, 브랜드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 한류콘은 영국에서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팬들이 스스로 만들어 온 축제이자, 팬·창작자·브랜드가 함께 성장해 온 특별한 플랫폼이다. 한국의 정서를 체험하고, 패션·뷰티·푸드까지 다양한 K-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한류가 영국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 올해 행사의 주제는 ‘Where Korea Meets You(한국이 당신을 만나는 곳)’로, 한국 전통문화와 현대 트렌드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올해 주제는 한국문화가 가진 개방성과 따뜻함, 그리고 각자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주는 매력을 알 수 있었다.

○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K-컬처는 창작자와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장면에서 그 역동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제 뜻을 더 넓게 펼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류를 사랑하는 현지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문화가 세계문화의 새로운 미래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한류콘 주최 측인 The Korean Wave Communities는“팬들이 직접 만들고 키운 행사라는 점이 한류콘의 가장 큰 자산이며, 앞으로도 영국 내 한류 커뮤니티와 K-컬처 창작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류의 다양한 세션과 프로그램, 이제는 K-라이프 스타일

○ 올해 행사에서는 한류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전통문화 체험: 한복 착용·포토존, △서예 북마크 제작 △K-뷰티 & K-패션: 스킨케어 데모, △라이프스타일 패널 토크 △창작자·팬 네트워킹: ‘Working in Hallyu’등 커리어 패널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K-퍼포먼스, 이벤트 게임 △Hallyu Lane: 한국 브랜드·식품·뷰티 제품 쇼케이스 등이 풍성하고 알차게 선보였다.

○ 특히 한복 체험과 한국식 서예 북마크 제작, K-뷰티 데모, 패션 토크, 푸드 시식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돼 관람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다. ‘Hallyu Lane’의 브랜드 쇼케이스는 영국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 특히 한류로 일하는 커리어란 무엇인가를 다룬 ‘Working in Hallyu’패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은 참석자가 몰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영국에서 활동 중인 창작자·제작자·커뮤니티 리더들이 직접 한류 관련 업무 경험과 현장의 흐름을 공유해 큰 관심을 받았다.

□ 영국 한류팬들이 직접 만들고, 영국 내 대표 한류 플랫폼으로 성장

○ 한류콘은 지난 5년간 온라인·오프라인 합산 1천만 명 이상에게 도달하며 영국 내 대표적인 커뮤니티 기반 한류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팬·창작자·브랜드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화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행사 또한 높은 관람객 참여율과 SNS 반응을 기록하며 한류

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입증했다.

□ 이번 한류콘 2025는 5주년을 맞아 한류의 다양성과 깊이를 다시 한번 보여준 자리였다. 문화원은 앞으로도 현지 커뮤니티, 창작자, 브랜드와 협력해 한국문화의 매력을 보다 폭넓게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영국 내 한류의 확산과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감성을 더욱 깊이 전달할 예정이다.